

# CIA 요원이었다던 남편, 알고 보니 사기꾼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생 후 9개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 으로 살고 있던 메리 터너 톰슨(53, 오른쪽)은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전직 CIA 요원이었다는 미국인 윌리엄 알렌 조던(왼쪽)을 만났다. 그리고 알게 된 지 불과 2주 만에 조던의 청혼을 받은 톰슨은 흔쾌히 수락하고 아내 그와 결혼했다. 2002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장했다. 이에 톰슨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와 집, 보험 등을 모두 팔아 남편에게 협상금으로 20만 파운드(약 25만 달러)를 건넸다.

남편을 믿었던 그녀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후였던 2006년 그녀에게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남편의 또 다른 아내라고 소개했고, 톰슨은 그녀를 직접 만나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조던은 이미 3명의 여성과 이중 결혼(중혼)을 한 상태였으며, 13명의 아이를 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직 CIA요원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으며, 중혼과 사기 및 불법 총기 소지죄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 이후 범법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조던은 다시 미국으로 도망쳤다가 2014년 경찰에 체포됐다.

톰슨의 이야기는 최근 '이중 결혼' (Bigamist)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된 뒤 큰 반향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던 이후 그녀를 놀라게 한 첫 번째 '사건' 이 발생했다. 어린 시절 앓은 병 때문에 불임이라고 했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긴 것. 당시 톰슨은 매우 놀랐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고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두 사람에게서 총 3명의 아이가 생겼고, 부부는 여느 사람들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2004년, 남편은 톰슨에게 "CIA 요원이라는 경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유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나를 협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위협을 없애야 한다."고 주

# 몸이 풍선처럼 부푼 남자의 사연

4년 전 당한 불의의 사고로 풍선처럼 몸이 부풀어 오른 페루 잠수부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페루 피스코에서 평생 잠수부로 조개잡이를 하며 생계를 꾸려왔던 알레한드로 라모스(57)는 4년 전 그날도 아들과 함께 조업을 나갔다. 그런데 수심 30m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공기호수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근처를 지나던 화물선이 일으킨 사고였다. 라모스는 서둘러 수면 위로 올라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등과 가슴, 어깨 팔뚝 등이 부풀어 오르면서 '풍선맨' 처럼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몸무게는 순식간에 30kg나 불어났다.

근육통이 심해지면서 잠수와 조개잡이까지 못하게 된 그는 기형적으로 변한 몸이 부끄러워 외출도 꺼렸다. 라모스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중, 이를 알아챈 아들의 만류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가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질소 축적 때문이란 것도 알게 됐다. 잠수했다가 빠르게 수면 위로 나오면서 몸에 질소거품이 축적돼 비정상적으로 몸이 부풀어 오른 것이었다. 그를 치료하고 있는 산후안테디오스 병원의 의사 미겔



알라콘은 "수심이 깊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나오면서 엄청난 질소가 체내에 축적됐고 근육에까지 침투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세계에서 라모스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기압질병 치료를 받고 있다. 최소한 100회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비용이다. 100회 치료를 받으려면 10만 달러가 드는데 현지에선 조개잡이 잠수부가 마련하기 힘든 거액이다.

라모스는 "일까지 못하고 있어 도저히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 손수 만든 낙하산 퍼지지 않아 사망한 소년



자신이 직접 만든 낙하산을 타고 14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15세 소년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17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마키우카에서 살고 있던 소년 보그단 피르소프라(사진 왼쪽 아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낙하산을 착용한 후 이를 촬영하기 위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낙하산이 퍼지지 않으면서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이 과정을 피르소프라의 어머니를 포함 어른들이 직접 지켜보며 응원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한 목격자는 "아파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를 지켜봤다."면서 "심지어 소년에게 뛰어내리라고 격려했다. 정말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피르소프라는 인터넷을 통해 낙하산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상황은 구경꾼들이 촬영해 15일 유튜브 등에 올렸다.

현지 언론들은 "낙하산 점프는 최소 25층 이상 건물이어야 하며 이 상황도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낙하산이 제대로 퍼졌다 해도 소년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년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부모와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이 이같은 비극을 낳았다."며 피르소프라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